

# 나주 시리아인 8명 변이 코로나 가능성...봄 4차 대유행 우려

### 확진 3주 뒤 뒤늦게 변이 확인

### 변이 유행에 거리두기 장기화 피로

### 나주 사례 우려보다 전파력 약해

정부가 올 3~4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4차 대유행 가능성을 공식 언급하고 나섰다. 나주와 경남 등지에서 뒤늦게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확인된 것과 맞물려 지역 방역 당국도 긴장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4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코로나19 브리핑에서 변이 바이러스 관련 질문을 받고 "3월, 4월에 유행이 다시 한번 올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다"며 "전문가를 비롯해 방역당국에서도 그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고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 반장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해 방역 확산 고리를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거의 유일한 수단인 상황이고 병상을 확보하는 부분을 (유행 대비) 커다란 축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지난 3일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총 39명이다. 이 가운데 '전남(나주)·경남 외국인 전적 집단발생 사례'의 코로나19 확진자 4명은 지역 내에서 집단으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첫 사례여서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제기됐었다.

이들 4명은 모두 시리아인으로, 같은 사례로 확진된 34명 역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일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지역 첫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로 지난 3일 뒤늦게 확인된 전남 609번 확진자(20대 시리아 남성·1월 10일 양성 확진)로부터 감염된 7명의 시리아(4명은 완치, 퇴원)인도 여기에 해당한다.

윤 반장은 전파력이 1.7배 가량 센 것으로 알려진 변이 바이러스 외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가 저조해지는 상황 역시 4차 대유행을 촉발할 수 있는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봄철 유행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해 사회적 수용성이 전반적으로 많이 저하되고 있고, 또 현장에서 불만의 목소리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이런 것과 함께 이달 중순부터 백신 접종이 이뤄진다는 기대감으로 인해 사회적

분위기가 이완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파력 1.7배' '양성 지속기간 2배' 등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성과 관련해서 향후 추가 사례 분석 등을 거쳐야 신뢰할 만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전남지역 첫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전남 609번·20대 시리아 남성) 관련 역학 조사 결과를 보면, 정부 당국의 평가와는 거리가 있다는 분석이 다수의 전남 방역당국 관계자에게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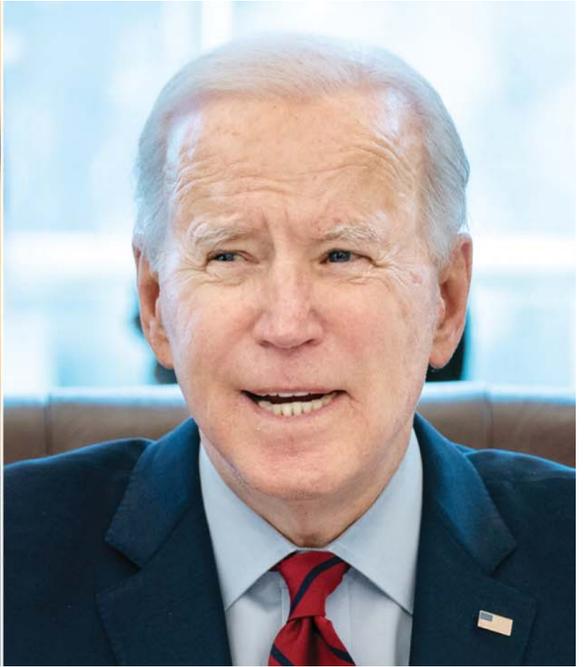
경남 김해 거주 매형(시리아 국적)으로부터 감염된 전남 609번의 경우 아내와 아들, 딸은 물론 20대 조카와 그의 아내, 2명의 자녀 등 7명을 감염시켰다. 이들 8명이 확진 판정받고 격리되기 전까지 접촉한 40명은 지난 1월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이 내려졌다. 또한, 지난 2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전남 609번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라는 사실을 통보받은 전남 방역당국이 1월 검사에서 음성 판정받은 40명의 접촉자와 나주 거주 시리아인 34명 등 74명에 대해 재검사한 결과, 재차 음성 판정이 내려졌다. 접촉이 잦은 시리아인 2가족 8명을 제외하고는 전혀 전파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파력 1.7배'라는 중앙 방역당국의 우려가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나주 방역당국 관계자도 이와 관련해 "전파력이 세다는 중앙 방역당국 설명이나 관련 언론보도와 달리, 나주 시리아인 사례만 놓고 보면 전파력이 기존 바이러스보다 세다고 단정 짓기는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전남 609번 사례를 들어 '양성 지속 기간이나 지속력이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세다'는 인식 역시 전남의 기존 사례와 비교하면 선뜻 공감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달 10일 나란히 확진 판정받은 609번 부부가 23일이 지나도록 양성 판정을 유지하고 있어 '2주 이내 완치'라는 평균치와 차이가 있다는 평가 있지만, 바이러스 검출 기간만 놓고 보면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여러 있다는 게 전남 방역당국 설명이다. 일례로 이날 전남 760번 확진자로 분류된 영암의 한 노인의 경우, 지난 1월 18일 양성 판정을 받은 손자(전남 665번·영암 원광어린이집 원생)를 생활치료센터에서 돌보다 확진됐다. 점에서 전남 665번 역시 양성 지속력이 평균치인 2주를 넘어선다는 것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통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문 대통령 "한반도 비핵화·평화 공동 노력"...바이든 "긴밀 협력"

### 한미 정상 32분간 통화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4일 정상통화를 갖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25분부터 57분까지 32분간 통화했다. 지난 1월 20일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이후 14일 만에 이뤄진 한미 정상 간 첫 통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에게 "한미 양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진전시키기 위해 공동 노력하자"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해결의 당사국인 한국의 노력을 평가하고 "한국과 같은 입장이 중요하다"며 "한국과 공동의 목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두 정상은 "가급적 조속히 포괄적 대북전략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같이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따라 한반도 현안에 대한 양국 간 조율 작업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며 한미 간의 '포괄적 대북전략'에 향후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가시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두 정상은 이날 한미 양국이 '역내 평화·변영의

핵심 동맹'임을 확인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책임 동맹으로서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을 넘어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미동맹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두 정상은 한일관계 개선과 한미일 협력이 역내 평화와 번영에 중요하다는 데도 공감했다. 또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는 대로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두 정상은 중국 등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으며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 사태와 관련해선 우려를 공유하고 평화적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 차기 대권 적합도, 이재명 27% 1위 독주...이낙연 14%·윤석열 9%

### 4개 기관 합동 여론조사

### 정당 지지도 민주당 1위

### 문 대통령 2%P 올라 46%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차기 대권 적합도에서 1위를 유지한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

엠베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3일 전국 18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가장 적합한가'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27%가 이 지사를 꼽아 가장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14%, 윤 총장은 9%였다.

2주 전 같은 조사와 비교하면 이 지사가 돌풍이 고 이 대표의 1%포인트 상승, 윤 총장은 1%포인트 하락해 비슷한 흐름을 유지했다. 다만 이 대표의 상승 반전했고 윤 총장은 하락세를 이어갔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 지사를 꼽은 응답자가 45%였고 이 대표의 28%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윤 총장(32%)에 대한 지지가 가장 높았고 이 지사(13%), 무소속 후보표 의원(11%) 순이었다. 대통령감으로 적합한 인물이 없거나 해당 문항에 응답

하지 않은 '태도 유보'는 35%였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4%, 국민의힘 20%, 열린민주당 5%, 정의당 4%, 국민의당 4%순이었다. 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서울에서는 민주당이 28%, 국민의힘이 21%의 지지를 받았다. 부산·울산·경남에서는 민주당 28%, 국민의힘 26%로 나타났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주 전보다 2%포인트 상승한 46%, 부정평가는 2%포인트 하락한 46%였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 국민의힘 서울·부산 지지율 민주에 크게 앞서

### 리얼미터 조사...당 지지율 역전

4월 광역단체장 보궐선거가 예정된 서울과 부산 권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10%포인트 격차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3일 전국 18세 이상 15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서 울 지역 국민의힘 지지율은 37.1%로 한 주 새 8.2%포인트 상승했다. 민주당은 8.7%포인트 하락해 24.8%로 내려앉았다. 양당 격차는 12.3%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2.5%포

인트) 밖이다. 부산·울산·경남에서는 국민의힘이 3.8%포인트 상승한 39.4%, 민주당이 9.2%포인트 하락한 24.5%를 각각 나타냈다. 양당 격차는 14.9%포인트다.

전체 당 지지율에서는 국민의힘이 2.6%포인트 오르 32.3%, 민주당은 1.8%포인트 하락한 30.6%를 각각 나타냈다.

두 당간 격차는 1.7%포인트로, 3주 만에 순위가 뒤바뀌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8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바른자세, 꾸준한 운동, 세심한 관리로 튼튼한 '인생' 튼튼하게 '즐기세요'

척추 무릎 어깨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 가능!

현대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8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바른자세, 꾸준한 운동, 세심한 관리로 튼튼한 '인생' 튼튼하게 '즐기세요'

척추 무릎 어깨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 가능!